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17. 흔들리지 않는 나라

2018. 11. 16. 이현래 목사

히브리서를 거의 다 했는데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복음의 초점은 예수이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일 뿐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 분이다. 결국 알고 보면 사람을 찾는 일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전부 다 한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예수라 한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사도들의 증거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초점은 예수이다. 무엇을 이야기 하든지 초점은 모두 예수이다. 생활에 관한 문제도 있고 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문제는 한 인격이다. 우리가 만난바 된 한 인격이다. 사도들이 만난 한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끝이 없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깐 헷갈리게 된다. 히브리서는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다. 믿음의 선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를 앞서간 성도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갔다. 그런 믿음을 본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다보니까 100살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아브라함처럼 또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유대인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그렇고 다 그런 일에 매여 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중보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요즘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을 보고 중보기도라고 한다. 그전에는 못 들던 말인데 요즘에 흔히 그렇게 말한다. 사실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어느 종교인들 그런 것이 없겠는가?

천주교 기도문에 ‘천주의 어머니 마리아님 우리 죽을 때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우리 죄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는 기도문이 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우리 살 때와 죽을 때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어찌면 예수는 없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예수 실종이다. 예수는 있으나 없으나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다. 그래서 아들이니 어찌니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생소할 뿐 아니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는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히11:39)라고 한다. 약속된 것은 못 받았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 아닌가? 그때로 본다면 약속을 받은 것이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받으면 맞는데 지금 와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아들은 역사적으로 태어난 이삭이라는 말이 아니고 더 깊은, 복의 근원이 될 그 아들을 약속한 것이다. 이삭은 복의 근원이 다 못되었으니까 약속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다. 또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약속의 궁극적인 실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리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뭔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아들도 이 사람이고, 이삭이 아니고 예수이다. 왜냐하면 이삭은 한 형상은 되지만 아직 완성된 실재가 아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 싹이 난다. 나무가 자란다. 그렇다면 씨에 대한 약속이 다 나타났느냐 하면 아직 다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열매가 열려서 다 익어야 그 약속이 나타난 것이다.

감이 열리는 것을 보니 처음에는 전혀 감 맛이 나지 않는다. 씨의 약속이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씨를 주겠다는 약속은 엉뚱한 말이 되어 버린다. 내가 너에게 이런 씨를 줄 텐데 이 씨는 이럴 것이라 하는 것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은 거짓말이 된다. 정말로 맛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맛있기는커녕 뚝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의심으로 꽉 차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전혀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죽은 후로 미뤄야 한다.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수직강하를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말세론이다. 말세론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 시대마다 나타난다. 그리고 또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번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끝없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죽은 후에 보자는 것이다.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론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늘 해프닝이 되고 만다. 참 실재를 못 보기 때문이다.

예수를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것이 답이구나. 이 사람이 찾던 그 사람의 답이구나. 약속했던 약속 자체구나. 그렇게 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한사람이 그 많은 약속 전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고후1:20)**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약속은 있지만 약속 자체를 받은 것은 아니다. 수표는 있지만 돈을 못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은행은 보증수표니까 은행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은행 보증 수표가 아닐 경우에는 수표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다. 약속어음 같은 것은 수표는 수표지만 약속 어음을 쓴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지 않으면 못 받는다. 우리가 시중은행 보증수표는 은행이 보증을 하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시중 은행처럼 믿을 수 있으면 좋지만 시중 은행만큼 못 믿는다. 여간 믿음이 좋지 않고는 그렇게 믿기 어렵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알게 된다.

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그 인격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기업을 약속한 것도 있고,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약속한 것도 있고 별별 것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대 그 시대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에 불과하지 그것은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궁극적인 답은 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히11:40)**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와 있는가! 달음질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인데 영광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 주자이다. 다 같이 100미터만 뛰지만 영광은 마지막 사람에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명이 일등으로 잘 달렸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넘어지면 헛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주의를 시키고 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그리고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전진해서 달리라는 것이다. 이것을 만일 잘못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해왔다고 해도 우리가 못하면 다 실패한다. 아브라함이하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 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왜 믿음이 주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온이다. 무엇을 약속했는가? 예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의 주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이다. 예수가 없었으면 믿음도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히11:1)** 그 믿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이 약속이 없으면 믿음은 헛일이다. 그냥 믿으면 뭘 얻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믿음이다. 믿음이라

고 해보야 신념이다.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뭘 얻는 그런 것이 있다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렌개교 사람들을 만나보면 남묘호랑개교를 한 달만 해보라고 한다.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한다. 소원을 두고 해보라고 한다. 그러면 성취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든지 하고 싶으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남묘호랑개교를 계속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취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직접 들었다. 마지막에 말이 안 되니까 일어나면서 해 보라는 것이다.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것도 믿음이다. 남묘호랑개교를 하면 뜻이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내가 저 처녀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두고 남묘호랑개교를 계속 해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시간만 나면 남묘호랑개교를 계속 외우고 있다. 옆에 사람들과 충돌하면서까지 하고 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럽다. 한 밤중에 남묘호랑개교를 하고 있으니깐 그래도 그것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왜냐하면 뭐가 성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약속 없는 믿음을 가지면 헛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나 혼자 중언부언하다 마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내 신념으로 뭔가를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주신 것은 약속에 대한 것이다. 약속 없이 응답하신 법은 없다.

예수는 믿음의 주다. 믿음의 시발이다. 예수 없으면 약속도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것도 예수가 없으면 이삭이 끝이다. 그러면 이삭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별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데 굳이 100살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되고,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그것이 뭐가 대수인가? 예수를 못 만나면 이삭도 헛일이다. 이삭도 그냥 별것이 아닌 일이다.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상들이 100일 기도를 하고 낳았다는 것이 많이 있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100일 기도를 하고 낳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인데 어디 가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100일을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정성을 들여 100일 동안 기도했다. 그냥 방에 앉아 기도한 것이 아니다.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100일 기도를 하고 나를 낳았다고 하니깐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 나를 낳고

말았으면 그것이 뭐 별거인가? 아들 없는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것밖에 안 된다.

예수가 답이 안 된다면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모든 믿음은 다 그냥 자기들 집안에서 있던 일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히11:1)**라고 할 때는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 말이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있고, 예수가 성취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하다. 완전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바톤을 받고 달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주의를 시켰다.

혹시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허술하게 여기고,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팔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것을 보고 망령되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망령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그것이 증거가 안 되면, 자기 자신으로 증거가 안 되는 말을 하면 헛소리 하는 것이다. 자기로 증거가 안 된 말이니깐 헛소리 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고 나서 뭐라고 하겠는가? 자기도 그 꼴이면서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가? 이러지 않겠는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뭐가 준비되어야 한다.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복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배워서 하면 망신당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에게는 복이 안 되는 일이다. C.C.C.에 있을 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4영리를 읽어주고 기도하고 오면 그 다음 일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한다.

그런데 정말 재수 좋게 어쩌다 그런 사람이 걸리는 수가 있다. 4영리를 읽어줬는데 눈물을 펄펄 흘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그냥 읽어주라고 해서 읽어주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감동을 할까? 나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이 했다고 그렇게 한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무 복이 안 된다. 내가 복이 있는 것을 전해야 복이 된다. 내가 복이 있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아도 나는 참 행복하다.

혹시 그 사람이 안 믿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상급이다. 복음 전하는 자는 배가 고프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이 둘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식사를 대접했는가? 이랬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밥 먹을 것도 잊어먹고 사마리아 여자가 말을 잘 들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 말이 누구 말인가? 자기 말이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한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들로 예배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지금 그리심 산으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들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그 말을 알아듣고 사마리아 여자가 귀를 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는가.

너무 기쁘니까 밥 먹을 것을 잊어버렸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는 것이다. 자기로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복을 더 받는다. 너무 행복한 일이다. 사람이 그렇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 너무 기쁘다. 악한 사람도 자기를 알아주면 아주 행복해 한다.

도둑놈도 자기 실력 알아주면 아주 좋아한다. 그 실력이 대단하다. 양복을 입고 가면 양복 속주머니를 싹 도려낸다. 언제 손이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안주머니에 있던 것이 싹 빠져나가니까 보통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복음을 잘 받아주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혹시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아라. 공연히 징계를 하겠느냐?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지 그냥 징계를 하겠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말아라. 행여라도 이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 지금 배가 고프는데 먹고 봐야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팔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갈아치운 것이다.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뜻이다. 너희는 만

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인가? 시내산이다. 모세가 갔던 곳이다. 200만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러 산꼭대기까지 갔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 뿐이다. 여호수아도 중간에 서 있으라고 하고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 가까이 못 오게 해라. 만일 산에 가까이 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 그래도 다행히 모세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계시를 받아서 와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다. 산꼭대기 가서 만날 사람은 없지만 성막을 건축해 놓으니가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게 했으니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다.

중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곳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나는 생각할 때 시온소에 계속 피를 뿌린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사함 받고 나온다.

그러면 그 피를 닦았다는 데가 어디에도 없다. 계속 피를 뿌릴 것인데 그러면 시온소에는 피 범벅일 것이다. 깨끗한 곳이 아니다. 또 닦고 바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들어갈 때마다 피를 뿌리는데 얼마나 더럽겠는가? 더군다나 깜깜하지 아무나 못 들어가서 무서운 곳을 조금 그래도 누그러뜨려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지성소이다. 그런 곳인데 이제 우리가 이른 곳은 다른 곳이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 같은 사람도 두렵고 떨렸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12:22~24)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시내산과 우리가 이른 곳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곳이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 좀 엄숙하다. 너무 엄숙해서 기침도 좀 하기 어렵다. 또 옷도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개신교에 가면 그보다 좀 낫다. 하지만 거기도 상당히 엄숙하고 거룩한 것을 강조한다.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은 강당에 올라가지도 못한다. 올라가면 큰일 난다. 어디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에 거룩한 강당에 아무나 올라간다고 난리친다.

사람들 속에 그런 것이 있다. 신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생각해왔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너무 좋아야 할 것인데 굳어져서 있으면 안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좀 자유로워야 하는데 바짝 굳어져서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C.C.C.에서 학생들하고 둘러앉아 성경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격식이나 이런 것을 차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가 나와서 모일 때도 역시 또 그렇게 모였다. 처음부터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맨 처음 가졌던 강대상은 어떤 것인가? 요즘은 그런 테이블을 보기도 어려운데 옛날에 시골에 호마이카로 된 상을 사놓고 시작했다. 거룩하고 말 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접이식 의자 30개를 사고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격식 차릴 것도 없었다.

어떤 곳은 사람은 없는데 강대상은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사람이 몇이 모이냐고 하니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고 자기들 식구들만 모이는데도 그렇게 해놓았다. 식구들끼리 모이는데 둘러앉아 모이면 되는데, 강대상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격식이 없다.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강당을 만들어서 다 보이도록 하려고 해놓은 것이지 둘러앉아서 모일 때가 참 좋았다. 서로 밀고치고 해서 강대상을 베니어판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하도 밀어서 뚫어져 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 되고 참 재미있다.

우리가 지금 이룬 곳은 아버지 집에 이룬 것이다. 아버지 집에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어야지 그것을 인간이 잘못된 생각으로 사원처럼 생각하면 안 될 일이다. 하나님 만나는 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일이다. 우리 생각은 다 신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진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밖에는 만날 수가 없다. 아직도 그런 관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면 다른 데서는 만날 수 없다.

우선 능력의 세계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분과

어떻게 우리가 교통이 되겠는가? 떡은 얻어먹어 좋지만 그런 분과 상대가 되겠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 성경에 그런 것을 왜 써놓았는가? 그것은 다른 목적 때문에 써놓은 것이다. 그분과 우리의 교통을 위해 써놓은 것이 아니다.

그분과 우리가 완전하게 밀착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다. 거기서 밖에는 나와 그분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결국 알고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되는 것이다. 예수와 하나가 아니면 아무리 별것을 다 잘해봤자 간격이 메워지지 않는다.

기도를 많이 하면 메워질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선행을 해서 그분과 내 사이가 메워지겠는가?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분하고 나 사이가 메워지겠는가? 어떤 것으로도 그분과 내 사이가 메워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었다는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독생자를 어떻게 주었는가? 베세다 광야에서 내보냈으면 그분과 내가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하나님이 주기는 주었다는데 내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고 하는데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받기에는 너무 버거워 감히 가서 받을 수가 없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 보여진 예수는 나와 다를 것이 없다. 내가 부담이 없다.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부담이 없다.

사람끼리도 지위가 너무 높으면 서로 교통하기 어렵다. 비슷해야 이야기도 하지 너무 다르면 교통이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이 되겠는가? 주어도 못 받는다. 준 것은 못 받고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뭐가 되겠는가? 아무것도 안 된다. 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준 것을 받을 수가 없다. 독생자를 주었다는데 내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면 차라리 믿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선물로 주었다는데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했는데 믿는다는 말 때문에 헛갈린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갓바위 돌부처를 믿듯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성을 들여 믿는다는 말도 아니다.

우리말에는 믿는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데가 있다. 'believe in'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음

식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내 안에서 소화가 된다. 예수가 내 안에 소화가 되어야 양식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먹어서 소화가 안 된 것은 내 몸에 독이 되어 버린다. 그냥 나가면 좋지만 소화가 안 된 것은 독이 된다.

예수 중독에 걸려서 소화가 안 된 예수를 계속 믿기만 하면 독이 된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한 사람이 있다. 죽어도 좋다. 이것이 얼마나 독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얼마나 독하면 사람을 그렇게 죽이겠는가. 장작더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다는 것이 얼마나 독하면 그런 짓을 하겠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는가? 보통 믿음으로는 그런 짓을 못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다. 만일 이 사람을 핍박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 한다. 어떻게 생사람을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죽이겠는가? 믿음이 너무 좋아도 참 문제가 많다. 평생 동안 믿음에 대해 강조만 받아왔으니까 만일 안 믿으면 큰일 난다. 평생 들은 말이 그 말이다. 방송 설교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다 믿는 것이다. 잘 믿으라는 그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겠는가? 더군다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와 어떻게 내가 같이 있겠는가? 따라 간다고 되겠는가? 붙잡는다고 되겠는가? 내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만 거기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있다는 말이 그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예수를 붙잡고 안 떨어지고 있겠는가? 그분에게 포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좋든지 나쁘든지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는 아담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담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담의 행사를 했다. 아담을 몰라도 아담행사를 다 한다. 왜?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면 내가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 안에 있는 일을 하게 된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내 운명이 거기서 발견되고 내가 거기서 발견되면 나는 그 사람으로 밖에 살수가 없게 된다.

중국 사람도 보면 한국에 와서 살아도 자기는 화교, 중국 사람이다. 어디까지나 중국 사람이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계속 들어간다. 화교로 살면 자기는 그것이 들어 있다. 미국에 가도 유대인과 중국 사람은 표가 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기르기 때문이다. 반드시 모국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아이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만날 때는 중국어로 하지 영어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가면 영어만 하지 한국어는 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렇게밖에 살수가 없다. 억지로 내가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억지로 예수처럼 살고 내가 억지로 예수 일을 하겠는가? 나는 정말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려면 너무 힘들다.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알아져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서 왔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결석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밖에 올 데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밖에 올 데가 없는 사람은 결석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붙잡힌 사람이다. 어디 억지로 붙잡히겠는가? 억지로 붙잡고 매주 오라고 하면 오겠는가? 가만히 놔둬도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서 온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 뭣하러 왔는지 모를 사람도 있다. 그래서 왜 왔냐고 하면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서 왔다고 한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나는 그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다. 꼭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개구리는 물에 있다가 육지에 있다가 계속한다. 왜냐하면 육지에 나오면 몸이 말라버린다. 땀구멍이 없어서 몸이 마르니까 오래 있지 못한다. 또 물에 들어가서 몸을 적시고 나와야 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놈은 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포함되면 나는 그렇게밖에 살수

가 없다. 다르게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히 12:28)**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는가?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것이지 안 흔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한다고 해서 안 흔들려지겠는가? 나는 그 참을忍(인) 자라는 글자가 독한 자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독하지 않은 사람은 못한다. 참을忍(인) 자가 칼 刀(도) 자 밑에 마음 心(심)이다. 칼 마음이다. 칼 도자 밑에 마음 心자가 참을忍자이다. 참는 것도 어지간하면 참지만 못 참을 것도 많다.

그런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히12:28)**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흔들리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 예수와 내가 연합하면, 그 안에 포함되면, 그 자리만 흔들리지 않지 다른 데는 다 흔들린다. 어디를 잡아도 다 흔들린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고 참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참 노력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라리가 되어 버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중세시대에 천로역정이라는 소설이 나올 때 천로역정을 읽어보면 천성에 이르는 길은 정말 험하고 어려운 길이다. 굽이굽이 문제가 있고 굽이굽이 처리하고 갈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당시의 신앙이었다. 거기서 통과해서 올라간 사람은 정말 드물다. 어쩌다 한명씩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나 갈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세계가 아닌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예전 성경에는 적혀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겟세마네 동산 까지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만일 거기서 우리를 포함했더라면 우리도 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고

했다. 더 이상은 갈 데가 없다는 말이니까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흔들리겠는가.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겿세마네 동산에서 끝났다면 우리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유가 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운명하셨다고 한다.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뛰어내리지 못한 자리에 연합된 사람은 더 이상 뛰어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할 수도 없다. 고민도 여유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전혀 여유가 없으면 고민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동정심이 안 간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동정할 것이 뭐가 있는가?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고민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일이 없다. 전혀 불가능하니까 아예 생각할 수가 없다. 안될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전혀 불가능하면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고민한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 거기에 고민했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마엘을 내보내려니까 양심에 거리끼기도 하고 별 것을 다 생각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다.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마음이 변심해서 하갈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여자들은 못 믿는다. 그 둘이 짝꿍해서 하갈을 데려왔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내보내라고 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밤새도록 고민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아이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루에 물도 담고 먹을 것도 담고 해서 내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오라고 할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다.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자기가 고민할 문제가 못 되는 것이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전혀 여유 없으면 고민 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 지성소 안에는 아무 바람이 없고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이 없는 곳이 지성소이다. 햇빛까지 차단되어 전혀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흔들리지 않는 곳이다.

여호와와는 요란한데 계시지 않고 화평 중에 계신다. 마음도 그렇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분노에 차면 한이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피해야 한다. 우리가 화가 나 있으면 하나님이 피해야 된다. 거기 있다가는 하나님이 맞아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해 있어야 한다.

화평 중에 거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오랫동안 분을 내면 안 된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했는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다. 분을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이니까 분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속에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한다. 예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못 알아듣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이 없는데 안전한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하느냐고 한다.

내가 오죽하면 그 이야기를 하겠는가? 남들이 모두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내가 뭐 하려고 하겠는가? 그 말을 안 하면 다 좋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실감이 안 되면 안 된다.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실감이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그것이 실감이 되어야만 내가 저기 있구나. 저 속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는 것은 다 불태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 나머지 것들은 다 불탈 것들이다. 알맹이를 거두고 나면 다 쪽정에만 남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요즘에 추수를 해서 참깨를 추수하니까 나머지 대공이가 남는데 뒷집 할머니가 그것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땀다.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모른다. 불을 안 때면 좋겠는데 아까우니까 기어코 땀다. 어차피 알맹이 이외의 것들은 다 불에 태울 것이니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알맹이를 키울 때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알맹이를 거두고 나면 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간에 예수 안에 포함되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불타야 될 것들이다. 나뭇가지 같은 것들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걸림이 되기 때문이다. 알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도리어 걸림이 된다.

너무 간단하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수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연합이 된다면 더 이상 갈 데 없다. 아주 간단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 보고 거기서 수많은 것들을 다 찾아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다고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열매를 거두고 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다. 그리고 간단하다. 심지어는 자랑스러웠던 믿음 까지도 사실은 이 연합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거두었으면 된 것이다.

김\*중씨가 유명한 말을 했다. 이전에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김\*중씨는 ‘이 도령을 만났으면 됐지 변사또 벌 줄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했다. 자기의 목적은 이 도령을 만나는 것이지 변사또 벌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보복이 없다는 말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큰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목표점에 이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다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런 과정을 지나온 것들이었으니까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렇게 지나와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면 그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복음, 마지막 복음이다. 더 달리 다른 길은 모르겠다. 더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이 보다 더 쉬운 길은 없고, 이 보다 곧은길도 없고, 이 보다 지름길도 없다.

그분 안에 포함되는 것,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신이 포함된다. 사실 알고 보면 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하면 불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붓다를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데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해결할 줄 누가 알았는가? 예수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해결할 줄을 누가 알았는가?

바울이 놀라운 점이 그것이다.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룬다고 한다. 이것을 누가 계획하겠는가? 생각해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애 먹인다. 너무너무 간단한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수능시험 만드는 것처럼 어렵게 만들었다.

요즘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다. 초창기에는 합격을 시키기 위한 문제를 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문제인데 이것을 비비꼬아서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를 만든다.

하나님은 바로 답을 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사람이 잘못되어서 쉬운 것을 찾는데도 쉬운 것을 안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을 자꾸 알아주니까 지금은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

누가 숨으려 했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했다. ‘누가 너더러 두렵다고 했느냐?’라고 했다. 하나님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은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복잡하게 되었다. 예수를 알 때까지 몇 천 년이 걸렸다.

이제 우리는 아주 단순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주어야 한다. 값없이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해서 최종 결론에 왔으니까 우리는 값없이 주어야 한다. 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주님이 그러신다.

어떻게 편히 쉬게 해 주겠는가? 간단한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 시대에 율법에 눌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키겠는가? 예수 안에 오면 그것이 다 해방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가야지 올라가서 올라가서 고생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을 잘 못알아들어서 이상하게 생각되고 어렵게 생

각하는 것이지 제대로 한 번만 딱 알아들어 버리면 이렇게 쉬운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가? 생각해 보라. 누구에게 그런 지혜가 있겠는가? 어디에 그런 지혜가 있겠는가? 세상에 많은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것은 저렇게 고치고 전부 그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고쳐도 끝이 안 나는 것이다. 근본이 틀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고쳐도 해결이 안 된다. 근본만 고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시원하다 시원해. 내 생각대로 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마17:5)**고 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아직도 세상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쉽게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일은 못할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언젠가 지일지 모르지만 쉬운 길을 열어 놓으면 누구든지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문제를 어렵게 내서 일부러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킬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이 그랬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으나 여전히 마찬가지다. 오히려 들볶아야 잘된다고 한다. 심하게 들볶아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 망하기로 걱정했는지 그런 식이다.

복된 소식을 쉽게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감사합니다.